



기고 노재훈 해남군선관위 홍보주무관

왜 조합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가?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아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이다.

이 법에 따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선거참여·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다.

왜 조합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가? 왜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불법선거에 대한 예방·단속 등을 통해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몇 차례 법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법률은 각각 그 제정년도는 다르지만, 조합장선거의 위탁 및 동시실시와 관련한 개정은 같은

해에 이루어졌다.

2005년에 조합장 선거관리의 의무위탁이 각 법에 규정된다.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의 한계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어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에는 조합장선거의 동시 실시가 각 법에 규정된다. 당시 조합장선거의 경우 그 실시시기 각 조합마다 달랐다.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지도가 가능하

게 된다.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금품·향응제공 등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과정으로써 계속 법이 바뀌어 왔다.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법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조합과 조합원의 발전을 위해,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겠다. 후보자의 공약이 진정된 것인지 살펴보는 한편,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함으로써 유권자가 주인이자 감독자의 지위에 있음을 시사해야 하겠다.

社 說

노인고용 확대 필요하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동이 직접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미 2006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이상)로 진입한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노인 실업률 증가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1~2018년 사이 15~64세 인구는 597만명 줄었는데 65세 이상 인구는 582만명 늘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15~64세 인구가 94만명 증가에 그쳤고 65세 이상 인구는 186만명 증가했다.

한국의 2018년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32.2%)이 일본(24.7%)보다 7.5%p나 높다 9%이 일본(1.5%)보다 높다.

한국이 아직 노령층 증가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고 노령층에 마땅한 인시·일용직이 적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은퇴 시기는 빨라지면서 한국의 노령층은 노후 불안감이 높다. 최근에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지에 대한 대의원 관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올 1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촉발된 노인 실업률 증가는 그만큼 노령층의 잠재된 구직 수요가 많으나 시장 경제에만 의존하기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 재능나눔, 사회서비스업 외에도 민간 일자리를 포함한다. 하지만 민간 일자리에 해당하는 실버카페, 간병인, 시니어 인턴십 등이 노령층에 배정되도 청년층 일자리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장에만 맡겨서는 필요한 만큼 공급될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을 통한 직접 급여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령층 사회안전망이 확보돼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들 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3월, 놀러갈 때 안전까지 챙기자

3월은 지역별로 각종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따뜻한 날씨로 산행과 가족과 함께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을 것이며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므로 이런 시기일수록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첫째, 화재관련 안전사고이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집을 나갈 때는 가스레인지 등 화기위험요소가 안전한지 살피고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주의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 담배 등의 화기는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산에서 불법 취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눈·발두름 기타 농산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안 되지만 필히 소각해야 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화 장비 등을 비치해 두는 등 안전조치 후 소각해야 한다.

둘째, 축제장 안전사고와 음주 관련 사고다. 축제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

성이 높고 야외 나들이를 위한 장시간 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므로 질서의식과 여유 있는 운전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기분에 취해 술을 마시는 것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산행시 안전사고이다. 자신의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해 길을 잃은 사고, 산악안전수칙 미 준수 등 사고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빙기 낙석사고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우리 생활주변에 많으므로 생각하고 살피며 주의하여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 시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비켜주는 양보의식과 올바른 주·정차 확립으로 최소한의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보자.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제2의 비상구 '경량칸막이'

2017년 통계청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거형태 중 아파트는 전체의 48.6%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는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주거형태이지만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에서 화재로부터 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럼 화재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탈출구인 '경량칸막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10월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는 세대 간 배란다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2005년 12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세대 내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 10월부터는 대피공간 대신 세대 간 하향식 파난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아파트 화재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파난시설 설치의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

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인근세대의 경계 벽을 무드러 보면 통풍 소리가 나는 곳이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하여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민일의 사재를 대비한 비상탈출구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로 훌륭한 안전장치를 갖춘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의식 개선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안전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구조의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내 이웃과 상호 간의 장애물을 제거해 나간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소중한 생명과 재산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유동석 / 보성 별교119안전센터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故事成語

榮業所基

榮業所基

▷ 뜻: 이상(以上)과 같이 잘 지키면 번성(奮盛·繁盛)하는 기본(基本)이 됨.

湖南新聞 (062) 224-5800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010-5330-553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 책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지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